

Daily Auto Che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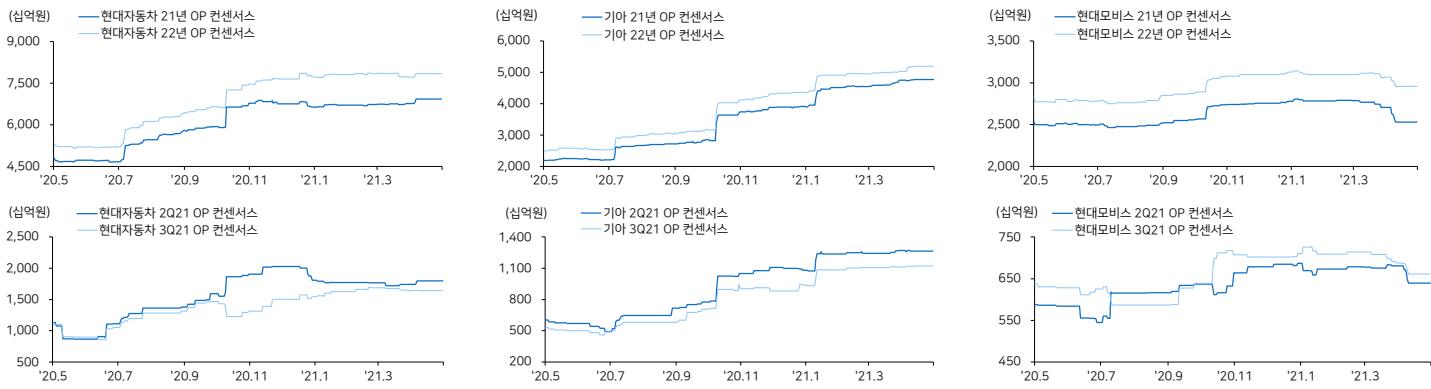
2021. 5. 20(Th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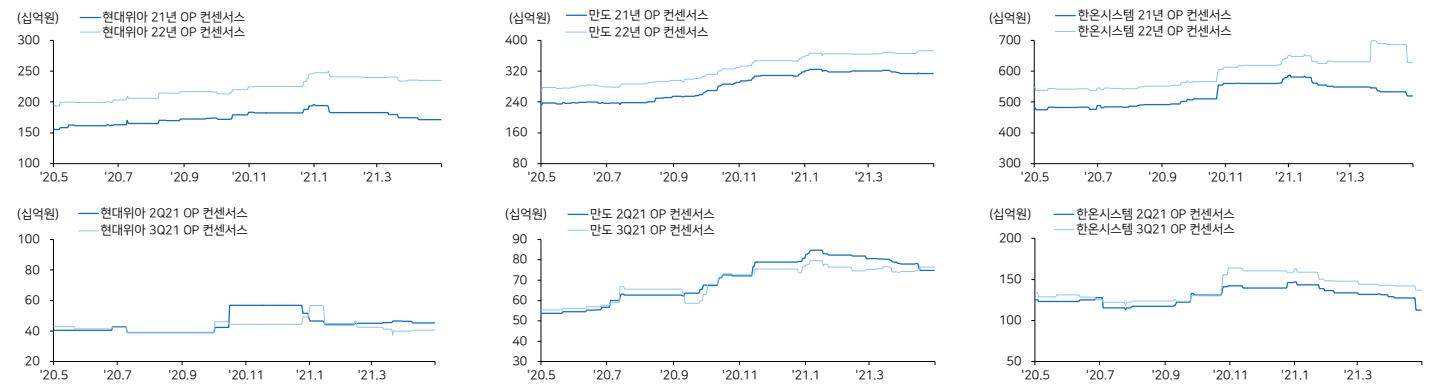
자동차/타이어
Analyst 김준성
02.6454-4866
joonsung.kim@meritz.co.kr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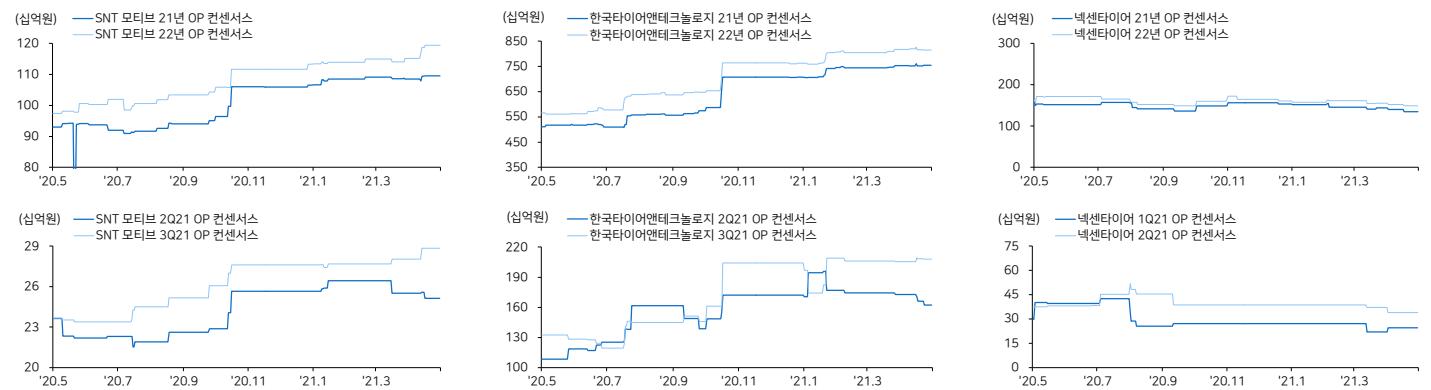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현대차 · 카카오 · SKT '메타버스 동맹' (한국경제)

현대자동차, 네이버, 카카오, 통신 3사, 중소기업 등이 메타버스산업 발전을 위한 동맹 체계를 구축함. 얼라이언스는 협업 프로젝트 발굴은 물론 메타버스산업 포괄 포럼도 수시로 열고, 메타버스 시장 관련 법·제도 정비를 위한 논의도 해나갈 예정.
<https://bit.ly/33Sy7Rp>

기아, 싱가포르에 '통합 차량 관제' 플랫폼 구축한다 (뉴스1)

기아는 싱가포르 현지 대리점 'Cycle & Carriage'와 고객 경험 혁신을 위한 '통합 차량 관제 플랫폼 구축 MOU'를 체결함. 또 차량의 주행 데이터를 수집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통합 차량 관제' 플랫폼을 내년 상반기에 구축함.
<https://bit.ly/3ow7xYg>

바이든 '전기차에서도 中이 이기도록 인하를 것' (한국경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8일 포드자동차의 전기차 공장을 찾아 '전기차 경쟁에서 중국이 이기도록 놔두지 않겠다'고 말함. 연설을 통해 '자동차의 미래는 전기차이며 지금은 중국이 앞서고 있으나 그들은 레이스에서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언급함.
<https://bit.ly/3yrLM4ci>

카카오모빌리티, 자율주행 서비스로 1위 '굳히기' (팍스넷뉴스)

국내 모빌리티 서비스 위기업 '카카오모빌리티'는 현재 도로에서 자율주행차량을 운영하며 기술 시험을 진행 중. 또한 로보택시 서비스를 앞두고 정류장을 두고 운영하는 서버 형태와 자유롭게 차량을 호출할 수 있는 형태의 서비스 방식을 고민 중.
<https://bit.ly/3eZSS4k>

4월 공개된 '제네시스 G80 전기차' 벌써 해외 호평 불과 (이데일리)

지난 4월 상하이 국제모터쇼에서 최초 공개한 G80의 전동화 모델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는 중. 중국 매체 '아이카'는 내외부 디자인에 대해 좋은 평가를 이어갔으며, 독일과 미국에서는 V2L(차량 외부 전원 공급) 기능의 활용성에 주목함.
<https://bit.ly/3ow2hnq>

기아, 전기차 EV6 2022년부터 미국서 판매… 타임스퀘어 데뷔 행사 (서울경제)

기아가 18일(현지시간) 첫 전용 전기차 EV6를 내년 초부터 미국 시장에서 판매한다고 밝힘. EV6는 미국 50개 주에서 2022년 초에 판매가 시작되며 EV6의 고성능 버전인 GT 모델은 2022년 말 출시될 예정이라고 언급함.
<https://bit.ly/3bCzq7m>

폭스콘, 자동차 사업 강화...스텔란티스와 카넥티드카 합작벤틀 추진 (글로벌이코노믹)

폭스콘은 스텔란티스와 카넥티드카, 자동차 부품 사업을 위한 합작벤틀 추진을 선언하며 자동차 사업을 지속 강화 중. 합작 법인은 네덜란드에서 '인포테인먼트', '텔레마틱스',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 개발'에 집중할 계획.
<https://bit.ly/3eZSS4k>

VW CEO Diess criticizes hydrogen cars for the climate (Teslarati)

VW 디스 CEO는 트위터에서 'Please Listen to the Science'라고 밝히며 수소를 사용하여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한 반감을 표명함. 포즈담 기후연구소(PIK)의 '수소차보다 BEV가 더 저속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를 인용함.
<https://bit.ly/3eZSS4k>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